



손으로 보는 세상



- **시선집중**
신경민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 **테마기획**
10월 15일, 흰지팡이 날을 소개합니다.
- **인터뷰**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시범직종 안마, 첫 금메달리스트 서재민 씨
- **포커스**
#말과글
서울도서관에서 만나는 점자

02 | 목차

03 | 점자로 말해요

▶ 홍시

04 | 시선집중

▶ 신경민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06 | 테마기획

▶ 10월 15일, 흰지팡이 날을 소개합니다.

08 | 인터뷰

▶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시범직종 안마, 첫 금메달리스트 서재민 씨

10 | 포커스

▶ #말과글 서울도서관에서 만나는 점자

12 | 함께 사는 이야기

▶ 직장생활, 나는 잘 하고 있을까
허용현 (시각 1급_서울특별시 종로구)

13 | 월드 리포트

▶ 마이크로소프트, 시각장애인 위한 3D 오디오 APP 발표!
▶ 미국 뉴욕, 시각장애인의 손으로 의류 생산!

14 | 뉴스앨범

▶ 포스코가 시각장애 아동의 놀이 체육을 지원합니다!
▶ 한시련, WBUAP 총회 참가해
▶ 한시련, 전국 지부·지회 실무자 대상으로 전국심화재활교육 실시!
▶ 한시련-사막여우픽처스와 업무 협약 체결해

16 |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 시각장애인이 기차·지하철을 탈 때

가을이 되면 말랑말랑하고
달콤한 홍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홍시는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① ④
② ⑤
③ ⑥

점자일람표															
자 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된소리
받 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쓰받침
모 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ㅘ	ㅙ	ㅚ	ㅜ	ㅝ	ㅞ	ㅟ	ㅠ	ㅡ	ㅣ	ㅘ	ㅙ	ㅚ	ㅜ	ㅝ
약 자	가	나	다	마	바	사	자	카	타	파	하	억	언	얼	연
	열	영	육	온	웅	운	울	은	을	인	것				
약 어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그러므로		그런데		그리고		그리하여		
숫 자	수표	1	2	3	4	5	6	7	8	9	0				
문 장 부 호	!	?	.	,	-	~(—)	*	“ ”	‘ ’	/					
	:	가운뎃점 (.)	말줄임표(...)		말줄임표(...)		소괄호()		대괄호[]						
영 어	영어시작	끝	대문자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아포스트로피 ,

*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스,즈,츠,쑈,쑈' 다음에 약자 영 ㅈ, ㅊ 이 올때는 '영'으로 바뀐다.

신경민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등을 발급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점자카드를 발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은 시각장애인의 금융편의 제고를 위해 점자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신용카드·직불카드의 발급) 제6항 및 제7항 신설에 일부개정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약 10%으로 시각장애인의 문자 향유권 보장을 위해 점자법이 2017년 5월 30일 시행되었으나 신용카드 등 금융생활에서의 점자 표기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어 시각장애인이 다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구분이 어렵고, 카드번호를 외워서 사용하는 등의 금융거래 제약과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카드사에 대해 시각장애인의 금융편의 제고를 위해 점자카드 발급을 권고한 바 있으나 대부분의 카드사가 대표상품 2~3개에 대해서만 점자카드를 발급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신용카드 선택에 제한이 있으며, 카드사마다 발급하고 있는 점자카드의 표기 방식 및 재질 등이 달라 카드 사용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시각장애인의 금융거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금융거래 카드 점자표기 표준을 제정했다. 금융사명, 상품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보안코드 등 점자 표기 대상과 표기 위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각장애인들은 카드 사용

에 애를 먹고 있다. 각 카드사들이 도입에 미온적인 까닭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종류가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법으로 명시한 정보접근 및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박탈한 명백한 차별이며, 카드사들은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장애인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카드에서 카드 정보를 가려버린다면 어떤 느낌일까? 시각장애인은 이미 오랫동안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 택시에서 내리면서 포인트카드를 잘못 제시할 수 있고, 마트에서 우유를 사면서 복지카드를 잘못 내밀 수도 있다. 온라인 쇼핑, 홈쇼핑 등을 이용할 때 포기해야하는 경우가 늘 생활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에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카드의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점자가 필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구분하고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는 시각장애인의 금융서비스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들을 점검하고, 모든 신용카드에 점자카드를 발급하는 것을 즉각 이행하기 바란다.

다시 한 번 법 개정을 위해 힘쓴 신경민 의원과 협력해 준 국회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신용카드·직불카드의 발급) 제6항 및 제7항 신설에 개정안 발의를 거듭 환영하고 경축하는 바이다.

우리 25만 시각장애인들은 신용카드 등 금융생활에서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는 물론 개정안을 조속히 마무리 할 때까지 예의 주시할 것이다.

2018년 9월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10월 15일, 흰지팡이 날을 소개합니다.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WBU : World Blind Union)에서 전 세계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10월 15일, 흰지팡이 날(the White Cane Day)인데요. 이번 호에서는 흰지팡이 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흰지팡이 날은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날로써, 리처드 후버(Richard Hoover)박사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위해 제작한 흰지팡이의 상징적인 의미를 이용해 이름 붙여졌는데요. 흰지팡이 날 선포문에는 '흰지팡이는 동정, 무능의 상징이 아니라 자립과 성취의 상징이다. 전 세계의 시각장애인관련 기관과 정부는 이날을 기해 시각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행사와 일반인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계몽을 적극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흰지팡이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1990년대는 세계대전으로 시각장애인이 증가하였던 시기였습니다. 이에 벨리포지 군병원(Valley Forge General Hospital)의 안과 의사였던 리처드 후버 박사는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고 사람들의 눈에 잘보이는 흰지팡이를 고안하였습니다. 이 지팡이는 무게 170g, 길이 117cm, 지름 1.27cm로 제작되었습니다.



1931년 캐나다에서 개최된 국제라이온스클럽(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ions Clubs, 국제적사회봉사활동 단체) 대회에서 흰지팡이에 대한 표준화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이후 1980년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10월 15일을 흰지팡이의 날로 공식 지정하여 각국에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2년 도로교통법에서 처음으로 흰지팡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는데요. 현재 도로교통법 11조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도로를 보행할 때는 흰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법 49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가 보호자 없이 걷고 있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고 걷고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제39회 흰지팡이 날을 맞이하여 구미 낙동강 체육관에서 전국단위의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약 3,000명의 시각장애인,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및 흰지팡이 대행진 등 화합의 한마당이 이어졌고, 각 지역별로도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되었습니다.

10월 한 달 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하게 열릴 흰지팡이 날 기념행사에 관심을 갖고 시각장애인들이 흰지팡이를 지지대로 재활과 자립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응원하며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시범직종 안마, 첫 금메달리스트 서재민 씨

지난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울산에서 제35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시범직종에 안마가 처음으로 시행되었는데, 첫 금메달의 영광을 안게 된 서재민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Q. 안녕하세요. 금메달 축하드립니다. 안마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A. 안마는 96년도에 서울맹학교를 졸업하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안마를 계속하게 된 것이죠.

Q. 이번에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안마 종목이 처음으로 포함되었는데, 전례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출전을 결정하게 되셨나요?

A. 저는 실로암안마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 계속해서 안마 일을 하다 보니 주변에서 이번 기능경기대회에 안마종목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려 주더군요. 처음에는 고민도 했지만 제가 평상시에 하던 일이고, 또 오랜 기간 동안 해왔던 일이니 대회를 통해 실력을 인정받고 증명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인천에서 대회에 나가게 되었고 전국 대회에도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서 창피하면 어떡하나 하는 고민도 했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Q. 그렇군요. 첫 대회라 이전의 대회 이력 등이 없었을 것 같은데, 대회 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처음으로 치러지는 종목이라 경기와 관련된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천안마사협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공개된 심사 및 평가 기준에 맞추어 열심히 연습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Q. 대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까?

A. 보통 17개 시·도 대표 1명씩 참가를 하게 되는데 당일 결시 등으로 인해 11명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실기 80점, 이론 20점으로 진행되는데 이론 시험은 객관식 14문제 주관식 6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실기 80점은 진단점수 20점, 압조절법 24점, 유연법 적용 36점으로 구성됩니다.

목, 견배부, 팔, 요둔부, 다리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8분씩 심사위원들을 안마하게 되고 심사위원이 채점한 결과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로 평균을 내서 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Q. 대회를 진행하면서 어렵거나 당황했던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A. 이론 시험을 볼 때 대독이 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안내 받지 못했는데, 당일 경기장에 가니 신청을 받더라고요. 아무래도 점자보다는 대독이 속도가 빠르다 보니 대회에 출전한 거의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대독을 원했지만 대독 인원이 준비되지 않아 한계가 있었어요. 이 해프닝 때문에 원활한 시험진행이 어렵기도 했고요. 그때 저는 신청하지 않았지만 대회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들이 대독이 아닌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점자를 사용해 문제를 읽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멀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론 시험에서 해부·생리학의 경우 구 용어와 신 용어가 혼합 사용되어 혼란을 주었는데요. 용어를 통일하는 것 또한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지요.

A. 저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실로암 안마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안마사로서의 역량을 기를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세계안마대회 같은 것이 열린다면 꼭 출전해 실력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말과글

서울도서관에서 만나는 점자

‘시각장애인’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점자일텐데요.
서울도서관의 ‘#말과글’ 테마 도서 전시 현장을
소개합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서울 시청 옆에 위치한 서울도서관에서는 자료실 별 테마 도서 전시가 열렸습니다.

‘#말과글’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전시는 7개 자료실, 7개의 주제로 진행되었는데요. 1층 장애인자료실에서는 <반짝이는 언어 수화&점자>라는 소주제로, 1층 일반자료실 1 어린이책 코너는 <읽기, 말하기, 쓰기>, 1층 일반자료실 1에서는 <말과글, 그리고 출판>이라는 주제로 전시가 진행되었습니다. 2층의 일반 자료실 2와 디지털 자료실에서는 <어떤 말, 어떤 글>, <사투리 영화>라는 주제로, 3층 서울자료실과 4층 세계자료실에서는 <바른 말, 고운 말?>, <The Art of Language>라는 주제로 각각 전시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짝이는 언어 수화&점자>라는 주제로 진행된 1층 장애인자료실 내에는 점자 도서 및 수화와 관련된 다양한 도서들이 진열되어 있었는데요. 특히 점자와 관련된 도서로는 ‘점이 모여 모여(엄정순 지음)’, ‘여섯 개의 점:점자를 만든 눈먼 소년 루이 브라유 이야기(젠 브라이언트 지음)’, ‘점자로 세상을 열다:한글 점자 만든 박두성(이미경 지음)’이 진열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비장애인들이 쉽게 접하지 못했던 지자체 점자 소식지나 의정 관련 점자 소식지,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점자매거진 등이 다수 전시되어 흥미를 더했는데요. 전시를 관람 하면서 자료실 안에 있는 소장 점자 도서들도 함께 살펴보며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도서관 전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점자라는 시각장애인들의 언어에 대해 알고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로 발행되는 간행물 및 도서를 읽으며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직장생활, 나는 잘 하고 있을까

허용현 (시각 1급_서울특별시 종로구)

오래 전, 필자가 근무했던 일터에서 만난 부장님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 분은 복권 마니아였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 종류별로 복권을 여러 장 산다. 복권을 사서 꼭 와이셔츠 앞주머니에 넣고 일주일 내내 가슴에 품고 다닌다. 그리고 점심 먹으러 갈 때마다 복권을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내가 이것만 맞으면 바로 회사 그만둔다, 나 출근 안 하면 당첨될 줄 알아.” 맨 날 그렇게 (요즘 애들 말로) 드립을 치면서 회사에 다녔던 부장님이 있었다.

그렇다. 운 좋게 재벌가에서 태어나거나 로또라도 당첨되어 평생 놀고먹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생계를 위해서 직업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냉엄한 생존 경쟁에서 장애인들에게는 조금쯤 예외가 적용되기도 한다. 직업을 갖지 않아도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하며, 그런 생활을 한다 해도 장애인에게 일할 것을 강요하는 사람도 없다.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사회 구성원들의 암묵적 동의 때문이다.

한국에서 시각장애인으로 사는 일, 특히 시각장애인 근로자로 사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필자는 첫 직장을 얻고 고민을 많이 했다. 시내버스를 타고 통근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효자동에서 성산동으로 출퇴근하는 단순했던 일정이 쉽지 않은 않았다. 남들보다 일찍 정류장에 도착하는 버스를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고 적절한 시간에 버스를 탑승해야만 했다. 내려야 하는 장소를 지나게 되면 매우 곤란했기 때문에 버스 안에서 늘 긴장하고 있었다. 버스에서 하차하면 인도를 따라 걸다가 뺑뺑에서 뺑 굽는 향기가 흘러나오면 사거리에 있는 횡단보도를 찾아 건너고, 다시 인도를 따라 걸다가 횡집에 설치된 수족관 소리가 들리면 사무실이 있는 건물을 찾아 들어가면 되었다. 이러한 삶은 출근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 버스의 운행 시간, 뺑뺑이 영업을 시작하는 시간, 횡집이 영업을 시작하는 시간 중에서 그 무엇이든 어긋나면 매우 곤란해지거나 불가능한 일정이었다.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필자가 통근하는 그동안 어떤 문제도 없었다.

사무실에 출근하기 위한 여정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시각장애인으로 사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고, 이주일이 지나니까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 분들이 필자를 기억하기 시작하였고, 뺑뺑에서 매일 빵을 사는 그 동네 목사님과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도와주기 시작했으며, 등교하던 초등학생들이 필자의 일터가 있는 건물 방향을 묻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알려주기 시작했고,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다른 회사의 여직원들이 함께 건물에 들어가 주기 시작했다. 첫 출근을 할 때는 많은 걱정을 했지만 몇 주가 지나지 않아 그것은 기우였음이 드러났다.

자기개념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심리 기제 중 하나다. 개개인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 인식에는 자신에 대한 다양한 정보, 예를 들어 이름, 신체적 특징, 성격, 직업, 가족, 물건 등 자신과 관련된 수많은 정보가 포함된다. 한 사람은 동시에 수많은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필자는 대부분의 순간에는 시각장애인이고, 어떤 작업장에서는 점역·교정사이고, 한 부부의 아들이고, 한 녀석의 형이고, 제자(후배)들에게는 교수(시간강사)이고,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면 친구가 되고, 이런 글을 쓰는 칼럼니스트기도 하다.

그런데 모든 자기개념이 항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 맥락에 관련된 적절한 자기개념이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제자들 앞에서 아무리 점잖고 엄격한 선생님도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떠들고 농담도 하고 가끔 욕도 한다. 만약 친구들 앞에서 무게 잡고 점잖게 학생들에게 가르치듯 얘기하는 친구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자기개념이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얼마나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가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자기개념의 관점에서 보면 필자는 스스로에게 이러한 물음을 갖게 된다. ‘나는 매 순간 그 사업장에서 직업인으로서 적절한 직업적 태도를 취했을까?’

우리는 직업을 통하여 당연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바라는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기 때문에 사회적 연대 구조 속에 있는 직업 활동에서 그에 마땅한 규칙과 질서가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그 잣대를 들쭉날쭉하게 써오지 않았나 싶다. 왜 우리는 아니 최소한 나는 장애차별을 이야기하고, 재활을 이야기하면서 남들 앞에서 왜 ‘장애’라는 말 뒤에 숨으려고만 하는지... 물론 자기개념은 공짜로 생기지 않는다. 맥락을 이해하기 어려운 장애차별, 역할에 비해서 형편없는 처우, 부족한 역할 교육, 낮은 자긍심 등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충분한 자기개념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한다. 만약 회사로부터 직장인이기보다는 그냥 시각장애인근로자로서 행동하도록 교육받았다면, 직장인의 개념은 애당초 생겼을 리가 없다. 제복은 품으로 입는 것이 아니다. 교복, 군복, 경찰복, 각종 유니폼은 그것을 입는 순간 적절한 자기개념이 행동을 지배하기에 유니폼을 입게 된다.

시각장애인의 행동이나 태도는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학습된다. 시각장애인이 의존적이고 무능하다면 그것은 유전된 것이 아니라 학습된 것이다. 시각장애인이 유능하고 독립적이라면 그것도 유전된 것이 아니라 학습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은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 지고 시각장애인도 동일한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 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변화는 바로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국가에서 국민이, 사회에서 구성원이, 회사에서 직원이 이렇게 행동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면, 그들 자신이 누구인가를 배우고, 믿고, 느끼고, 잊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면 행동은 그냥 자동으로 따라온다.

마이크로소프트, 시각장애인 위한 3D 오디오 APP 발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비전 오스트레일리아는 시각장애인들이 주변을 파악하고 보다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고안된 3D 오디오 애플리케이션(APP)을 발표했습니다. Soundscape라고 불리는 이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APP에서 GPS와 내장 된 나침반을 사용하여 공간 오디오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오디오를 통해 시각장애인은 주변의 관심 지점 4곳과 사용자 앞의 명소 5곳의 이름을 제공받게 됩니다. 앞으로 시각장애인들은 이 APP을 이용해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뉴욕, 시각장애인의 손으로 의류 생산!

미국 뉴욕 북부의 알바니에 있는 의류 공장에는 시각장애인 재봉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시각장애인 직원인 Diane은 재봉틀을 이용해 의류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최대 100개의 안전 조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Diane은 예리한 손끝으로 자신이 생산한 조끼의 바느질을 확인하는데, 처음에는 바늘에 많이 찔리기도 했지만 숙련된 지금은 누구보다 완벽한 바느질 기술을 뽐내고 있습니다.

Diane 외에도 이곳에서 근무하는 많은 시각장애인 직원들은 바느질, 봉합, 다림질 등 각자의 역할을 하며 의류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알바니 공장에서는 해군, 육군 및 해병대를 위한 넥타이의 대부분을 시각장애인 직원들의 손을 통해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NEWS

마이크로소프트, 시각장애인 위한 3D 오디오 APP 발표!

지난 8월부터 포스코는 시각장애 아동들의 놀이체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놀이체육교실은 12월까지 매주 화요일 10시~12시에 진행되는데요, 유아체육 전문 강사와 함께 체육 수업교구를 활용해 진행됩니다.

놀이체육교실은 주로 시각장애 아동들의 부족한 신체활동과 근력, 균형감을 길러주고 질서 의식과 사회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활동들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또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에는 시각장애 아동 요가교실이 열리는데요. 부족한 유연성과 시각장애로 인한 신체 불균형을 개선하고 심신의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시련, WBUAP 총회 참가해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2018년 9월 10일부터 3일 동안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14회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 아시아·태평양지역분과(World Blind Union, 이하 WBUAP)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제14회 WBUAP 총회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분과 임원들이 참가하였으며, "단 한명의 시각장애인도 저버리지 않는 것 - 우리가 지금까지 달성한 것과 앞으로 지지하는 장애인권리협약의 10년"이라는 메인 주제를 기반으로 각국의 대표들과 함께 공동 관심사를 논의했을 뿐만 아니라 2014년 홍콩에서 개최된 총회 회의록 보고 및 사무총장 선출, 시각장애인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와 함께 국가별 시각장애인 현황에 대하여 공유하였습니다.





한시련, 전국 지부·지회 실무자 대상으로 전국심화재활교육 실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지난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8년 전국심화재활교육(실무자과정)'을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된 실무자 과정은 한시련 전국 지부와 지회 담당자들의 전문성 향상 및 상호 교류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긴 과정인데요, 올해에는 장애인 복지사업 담당자들의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강의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에 참가한 실무자들은 "이번 교육이 사업의 예산 관리와 홍보 및 재정 확보 등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시련-사막여우픽처스와 업무 협약 체결해

지난 10월 4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사막여우픽처스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시각장애인의 문화향유증진과 시각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것인데요, 사막여우픽처스는 시각장애인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 재정적 후원 및 공연 관람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사막여우픽처스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이 함께 협력해 시각장애인들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늘리는데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각장애인이 기차·지하철을 탈 때

시각장애인이 역 주변이나 대합실에서 혼자 헤매고 있을 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사를 말로 전달하시고 매표, 화장실 등 출입구로의 이동을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도와주시고, 필요시 역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역무원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역무원 또는 관련 요원들이 장애인의 탑승 및 안내서비스를 일부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강장에서 승차 위치 및 출구를 찾지 못해 헤매는 경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세요.



I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한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예금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외환은행 170-22-00710-6



손으로보는세상 2018년 10월 219호

발행일 2018년 10월 15일 발행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홍순봉 편집 김민지

주소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601호

T 02,799,1043 F 02,799,1017

홈페이지 www.kbuwel.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 한국엠디 02,867,1921

캘리 모노D